

## 빠알리어 경어 복수형의 용법과 변천: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 Jātaka)』의 용례를 중심으로

권예림(주저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김경래(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부교수)

### 국문초록

빠알리어의 수는 단수(ekavacana)와 복수(bahuvacana) 두 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서 복수는 산스크리트어의 양수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러나 빠알리 문헌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단수임에도 복수형으로 서술되는 용례들이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어 복수형이 그중 하나이다. 경어 복수형(honorific plural)은 권위를 갖는 한 명의 인물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형을 뜻하는데, 실제로 빠알리 주석전통 및 문법전통에서는 ‘존경의 복수형(garu-bahuvacana)’이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빠알리어의 경어 복수형이 무엇이며 문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밝히고, 빠알리 문헌에 드러나는 경어 복수형 용법의 유의미한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빠알리 문헌을 원전(Mūla)과 주석서(Atṭhakathā)의 층위로 나누어 각각에 특징적인 경어 복수형의 활용양상을 분석했고, 자따까 주석서(Jātakatthavaṇṇanā)의 513번째 텍스트인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 Jātaka)』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용례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원전인 계송을 통해서 1인칭 경어 복수형을, 주석을 통해서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의 용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따까 주석서뿐만 아니라 『밀린다빵하(Milindapañha)』, 그리고 붓다고사(Buddhaghosa)와 담마빨라(Dhammapāla)가 저

술한 주석서들의 용례분석을 통해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빠르게는 CE 1-3세기, 늦게는 CE 5세기 이전에 이미 문법화 되어 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제어: 경어 복수형, 존경의 복수형(garu-bahuvacana), 빠알리어 문법, 빠알리 주석서(Pāli-Atṭhakathā),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 Jātaka), 2인칭 대명사

## I. 서론

빠알리 문헌을 다루는 문헌학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빠알리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김서리와 황순일이 있다. 전자는 전통 문법서인 『갓짜야나 문법(Kaccāyana-vyākaraṇa)』, 『목갈라나 문법(Moggallāna-vyākaraṇa)』, 『삿다니띠(Saddanīti)』를 중심으로 빠알리 문법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찰했고, 후자는 여래십호 및 비구(bhikkhu/bhikṣu)라는 명칭을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sup>1)</sup> 본 논문의 목적은 빠알리 문헌에서 발견되는 경어 복수형의 개념과 용례를 소개하고, 그 용법의 특징과 변천을 밝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어 복수형(honorific plural)이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단수의 인물을 높여 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형을 일컫는다. 영어권에서는 라틴어 용어인 pluralis majestis에서 유래한 majestic plural 혹은 polite plural로도 불린다. 빠알리 주석전통 및 문법전통에서는 ‘존경의 복수형’으로 번역 가능한 garu-bahuvacana, garukāra-bahuvacana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왔다.<sup>2)</sup> 이 복합어는 특정 인물의 중요성과 그가 받는 존경을 나타내는 형용사 garu(Skt. guru)와 단어의 복수형을 뜻하는 bahuvacana가 접합된 것이다. 이러한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듯, 빠알리

1) 김서리 2017a; 2017b; 2019; 2021; 2024a; 2024b; 황순일 2007; 2010.

2) Thag-a. I, 153; Sadd., 16-19. 전자는 담마빨라(Dhammapāla)의 표현 중 하나로, 그의 주석서에서 경어 복수형은 하나의 체계화된 용어로 지칭되지는 않았다. 반면 garukāra-bahuvacana는 악가왕사(Aggavaṃsa)의 『삿다니띠(Saddanīti)』에서 일관된 문법 용어로서 활용되었다.

어의 경어 복수형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언어적으로 부호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빠알리 문헌에 묘사된 인물간의 사회적 역학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언어학자 헬름브레히트(Johannes Helmbrecht)의 지적처럼, 인도 아대륙의 많은 언어들에서 인칭 대명사 체계에서 세 단계의 공손성 - ① 높임이 없는 2인칭 대명사 단수형, ②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을 사용한 높임, ③ 그보다 더 공손하게 여겨지는 3인칭 대명사 등을 사용한 높임 - 을 갖는다.<sup>3)</sup>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모델은 빠알리어의 인칭 대명사 체계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빠알리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스크리트어와 아르다마가디아어(Ardhamāgadhī)에서도 경어 복수형의 용례가 확인된 바 있다.<sup>4)</sup>

한편, 페르니올라(Vito Perniola)는 문법서 *Pali Grammar*에서 빠알리어의 경어 복수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는 빠알리 주석전통 및 문법전통의 용어에 부합하는 ‘존경의 복수형(The plural of respec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여섯 가지의 용례가 『디가 니까야(Dīgha Nikāya, 이하 DN)』와 『맛지마 니까야(Majjhima Nikāya, 이하 MN)』에서 발췌되었는데, 1인칭 복수형의 용례 네 개와 2인칭 동사 복수형의 용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sup>5)</sup> 다음은 경어 복수형에 대한 그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① 동사의 주어가 중요한 인물일 때 동사는 때로 복수형을 취한다.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표현될 경우에는 그 또한 복수형을 취한다.

② 한 단락에서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혹은 그 반대로 수가 전환되기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존경의 복수형이 오직 주격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③ 존경의 복수형은 다소 드물게 쓰이며, 왕이나 바라문이 화자 또는 청자일 경우에만 사용된다. 붓다가 화자일 때는 보통 1인칭 단수형이, 청자일 때는 *bhante* 같은 호격과 *bhagavā, gotamo, bhavaṃ gotamo* 등의 주어와 함께 3인칭 단수형이 사용된다.<sup>6)</sup>

3) Helmbrecht 2003, 197-198; 2014, 316.

4) Speijer 1980, 15-16; Pischel 1957, 280.

5) 본 논문에서 2인칭 경어 복수형은 품사(대명사, 동사)의 구분이 시기에 따른 경어 복수형의 발전을 논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품사를 붙여 명기한다. 그러나 1인칭의 경우, 그러한 구분이 역사적 함의를 가지지 않으므로 품사 표기를 생략한다.

6) Perniola 1997, 345-346.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경전 이후(post-canonical)의 문헌에 나타나는 경어 복수형 용례들은 ②·③의 내용과 현저히 불일치한다. 이는 간단히 말해 주석서(Atthakathā)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 이후 문헌들의 복수형 용법과 원전(Mūla)의 그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페르니올라가 제시한 용례의 출처가 DN와 MN라는 점이 시사하듯, 경어 복수형에 대한 그의 이해는 원전 텍스트의 용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빠알리어의 경어 복수형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콜린스(Steven Collins)의 *A Pali Grammar for Students*에서 발견된다. 그는 1·2인칭 대명사가 사회적 위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공손함을 표하기 위해 1인칭 단수형이 복수형으로 대체되는 반면, 가까운 사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2인칭 단수형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sup>7)</sup>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 Jātaka, 이하 Jay)』의 용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원전과 주석서의 경어 복수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Jay의 용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경어 복수형의 용법과 그 변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Jay는 각각 원전과 주석서를 통해 대표적인 경어 복수형인 1인칭 복수형과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의 용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Jay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여타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용례들을 함께 비교하며, 원전과 주석서의 경어 복수형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 II. 원전(Mūla)의 1인칭 경어 복수형

### 1. Jay의 용례

일반적으로 ‘자따까(Jātaka)’로 여겨지고 있는 『자따까 주석서(Jātakatthavaṇṇanā, 이하 Ja)』는 원전에 해당하는 계송과 그에 대한 산문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계송을 포함한 Ja는 현재의 형태로 편찬되기까지 장기간의 전승 및 편집과정을 거쳤고,

---

7) Collins 2006, 65; Wagle 1967, 278-316. 한편, 복수형에 대해 다루지는 않지만 빠알리어의 경어 및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와글(N. K. Wagle)의 논문 ‘Social groups and ranking: An aspect of ancient Indian social life from the pali canonical texts’가 있다. 여기서 그는 빠알리 경전에 묘사된 사회적 집단들 간의 관계를 인사법, 호칭어, 지칭어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지층의 텍스트가 착종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sup>8)</sup> 이 장에서는 Jay의 다섯 번째 계송에서 발견되는 용례를 중심으로 원전의 1인칭 복수형 용법을 살펴볼 것이다.

아래 계송의 화자는 식인을 하는 약카이고 청자는 뻘짜라 왕국의 자얏디사 왕이다. 약카는 사냥을 나온 왕을 숲에서 마주치자 그를 잡아먹으려 한다. 이에 왕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며 도시로 돌아가 그 약속을 지키고 다시 약카에게 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한다. 그러자 약카는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답한다.

kiṃ kammajātaṃ anutappate tvaṃ | pattaṃ samīpaṃ maraṇassa rāja |  
**ācikkha me taṃ api sakkuṇemu** | anujānituṃ āgamaṇāya paṇhe ||<sup>9)</sup>

어떤 행위가 그대를 후회하게 하나 | 죽음 앞에 다다른 왕이여 |  
 내게 그것을 말해보게 혹시 | 아침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니 ||

세 번째 빠다(pada)의 sakkuṇemu는 sakkuṇāti의 1인칭 원망법(Optative) 복수형이다. 흥미롭게도 정확히 같은 구절이 『뻘따왓투(Petavatthu)』의 『쫄라셋티 뻘따왓투(Cūlasatthi Petavatthu)』에도 등장한다. 여기서는 아자따삿뚜 왕이 화자이고 쫄라셋티라는 이름의 아귀가 청자이다.

naggo kiso pabbajitosi bhante | rattim kuhiṃ gacchasi kissa hetu |  
**ācikkha me taṃ api sakkuṇemu** | sabbena vittaṃ paṭipādaye tvaṃ ||<sup>10)</sup>

나체의 마른 출가자 존사시여 | 밤에 무슨 연유로 어디에 갑니까 |  
 내게 그것을 말해보시오 혹시 | 그대에게 재산을 전부 줄 수 있을지 모르니 ||

위 두 계송의 복수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sakkuṇemu가 포함된 빠다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송의 전체 구조까지 매우 유사하다. 1·2빠다에서는 상대의 현상태(“죽음 앞에 다다른 왕이여”, “나체의 마른 출가자 존사시여”)를 언급하며 질문을 던지고, 3·4빠다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을 제시하며 답을

8) Appleton 2016, 7-8.

9) Ja. V, 24. 이하의 모든 번역은 필자의 것임을 밝힌다.

10) Pv., 29.

이끌어낸다. 이는 *ācikkha me taṃ api sakkuṇemu*가 유사 계송들을 위한 일종의 정형구처럼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11)</sup> 둘째,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상하관계가 모호하다. Jay의 경우, 약카의 1인칭 복수형 사용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강조인지 자얏디사 왕의 체면을 보호해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자따삿뚜 왕과 쫄라셋티도 마찬가지이다. 빠알리어의 경어 복수형이 왕에 의해 혹은 왕을 향해 흔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bhante*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 아자따삿뚜 왕은 쫄라셋티를 출가자로 인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인칭 복수형 용례에서 화자-청자 관계 및 발화의도의 불명확성은 앞서 다룬 예시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실, 원전의 1인칭 경어 복수형은 주석서의 2인칭 대명사 복수형에 비해 그 기능과 쓰임이 비표준적이며, 그것이 화자 자신에 대한 높임인지 청자에 대한 공손인지조차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1인칭 경어 복수형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기능과 용법

경어 복수형에 대한 빠알리 문헌의 가장 이른 언급은 담마빨라(Dhammapāla)의 주석에서 발견된다. 그가 원전의 특정 단어를 경어 복수형으로 해설한 것은 총 다섯 번으로 그중 하나는 1인칭 복수형에 관한 것이다. 『왓지뿔따 테라가타(Vajjiputtattheragāthā)』의 “나는 홀로 숲에 머무네(*ekakā mayam araṇṇe viharāma*)”<sup>12)</sup>라는 구절에 대해 담마빨라는 “여기서 자신에 대한 존경의 복수형 사용이 바람직하므로”<sup>13)</sup> 복수형이 쓰였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그는 1인칭 경어 복수형의 기능을 화자 자신의 높은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E 12세기에 저술된 『루빠싯디(Rūpasiddhi, 이하 Rūp)』와 『삿다니띠(Saddanīti, 이하 Sadd)』에서도 경어 복수형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된다.<sup>14)</sup> Rūp의 저자 붓다삿야(Buddhappiya)는 1인칭 대명사 주격 복수형인 *mayam*에 대한 『갓짜야나 문법

11) 두 계송은 11개 음절로 구성된 뜻투바(*Tutṭhubha*, Skt. *Triṣṭubh*) 운율로 지어졌으며 *ācikkha me taṃ api sakkuṇemu*는 이 운율의 정형에 완벽히 부합한다. 정확한 운율을 갖추므로써 해당 빠다는 유사한 맥락에서 활용되기 용이한 재료였다고 볼 수 있다. 뜻투바 정형에 관해서는 Warder 1967, 202-203.

12) Thag., 10.

13) Thag-a. I, 153: *ettha ca attani garubahuvacanappayogassa icchitabbattā ekakā mayam vaharāmāti.*

14) Rūp의 연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Norman 1983, 164; Matsumara 1999, 158; Gornall 2014, 21.

(Kaccāyana-vyākaraṇa)』 121번 규칙과 관련하여 “한 명에 대해서도 존경과 높은 평가로 인해 복수로 바뀌어 복수형이 된다”<sup>15)</sup>고 말한다. 이는 담마빨라의 입장과 동일하다.

한편, Sadd의 저자 악가왕사(Aggavaṃsa)는 빠알리어의 복수형 용법을 총 15가지로 상세히 분류했다. 자신을 칭하는 1인칭 복수형은 *atta-bahuvacana*로, 2·3인칭 존경의 복수형은 *garukāra-bahuvacana*로 차별화하여 구분했다.<sup>16)</sup> 그리고 전자의 예시로 『메기야 슛따(Meghiya Sutta)』에서 붓다가 메기야 존자에게 “메기야여, ‘정진’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sup>17)</sup>라고 말하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는 악가왕사가 1인칭 복수형을 상대에 대한 공손의 일환으로 보지는 않았음을 암시한다. 요약하자면, 담마빨라와 붓다빠야는 자신(단수)을 가리키는 1인칭 복수형이 화자 본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악가왕사는 1인칭 복수형이 높이는 대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인용한 예시들을 통해 1인칭 복수형을 공손함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았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페르니올라는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이상의 주석가 및 문법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던 반면, 콜린스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1인칭 복수형이 청자에게 공손을 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빠알리 문헌의 용례들은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단적인 예로, DN·MN·AN에서 왕이나 왕이 보낸 바라문은 “존사시여,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전 할 일이 많고 바쁩니다.”<sup>18)</sup>라는 정형구로 붓다와의 대화를 마친다. 왕 혹은 그의 대리인은 보통 수행원을 동반하므로 실제로 주어가 여럿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복수형의 활용은 수행원의 동행을 언제나 암시하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1인칭 경어 복수형으로 읽힌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메기야 슛따』의 용례를 붓다가 메기야 존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빠알리 문헌의 해석과정에서 붓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두 인물에게 작용하는 사회적 위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DN 『사만나팔라 슛따(Sāmaññaphala Sutta)』의 용례는 콜린스의 주장처럼 1인칭 복수형을 통해 공손함을 나타낸다. 지와까 꼬마라밧짜는 아자따삿뚜 왕에게

15) Rūp(Sinhalese edition). 386: *ettha ca ekasmimpi gāravabahumānena bahuttasamāropā bahuvacanam hoti.* 『갓짜야나 문법』의 해당 규칙과 그 예시 및 주석에 대해서는 김서리 2024c, 187-188.

16) Sadd. I, 18-19.

17) Ud., 35; Sadd. I, 18: *padhānanti kho meghiya vadamānaṃ kinti vadeyyāma.*

18) DN. I, 85: *handa ca dāni mayam bhante gacchāma bahukiccā mayam bahukaraṇīyāti.* 호칭어만 바뀐 채로 다음에도 등장한다. DN. I, 106; DN. II, 76; DN. III, 205; MN. I, 251; MN. I, 380; MN. II, 102; MN. II, 117; AN. II, 181; AN. IV, 21; AN. V, 69.

자신의 소유인 망고 숲에 머물고 있는 붓다를 친견할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이시여, 세존이자 아라한이자 정등각자인 그는 저의(amhākaṃ) 망고 숲에 머물고 있습니다.”<sup>19)</sup> 여기서 1인칭 대명사 ahaṃ의 소유격 복수형인 amhākaṃ이 사용된 것은 『사만나팔라 숫따』 도입부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 있는 지와까 꼬마라빳짜의(jīvakassa komārabhaccassa) 망고 숲에 머물고 있었다.”<sup>20)</sup>의 단수형과 대비된다. 이 경우에는 왕과 신하의 상하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직접 드러내는 단수형 대신 완곡하게 복수형을 사용해 공손함을 갖추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1인칭 경어 복수형은 공손과 권위 중 어느 하나만을 나타내지 않는 모호성 혹은 다중성을 지닌다. 같은 인도아리아어군에 속하는 산스크리트어와 힌디어의 한 명을 지칭하는 1인칭 복수형 용법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스피이저(J.S. Speijer)는 산스크리트어에서 1인칭 단수형과 복수형이 비교적 자유롭게 혼용됨을 지적하면서 이를 라틴어의 노시즘(nosism)에 비교한다.<sup>21)</sup> 나아가 힌디어에서 1인칭 경어 복수형은 빠알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문법보다는 화용적(話用的) 요소로, 맥락에 따라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청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2)</sup> 지와까 꼬마라빳짜의 예시처럼 1인칭 단수형 대신에 겸손의 어조를 취하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도 청자에 대한 존경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빠알리 원전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1인칭 경어 복수형의 기능은 화자 높임과 청자 높임의 양립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해석은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해석자의 종교적·문화적·해석학적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Jay 계송의 용례를 재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약카, 청자는 왕이므로 표면적인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왕을 향한 약카의 지속적인 거친 언행에 주목하면 보다 실질적인 권력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일례로 그는 왕을 자신의 “떡이(bhakkho)”라고 부른다. 게다가 사슴고기를 줄 테니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하는 왕에게 “헛소리할 때가 아니다(na vilāpakālo)”라고 답한다.<sup>23)</sup>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약카의 언행이 인간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왕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계송의 서사적 맥락상 약카는 도시에 가서

19) DN. I, 49: ayaṃ deva bhagavā arahamaṃ sammāsambuddho amhākaṃ ambavane viharati.

20) DN. I, 47: ekama samayaṃ bhagavā rājagahe viharati jīvakassa komārabhaccassa ambavane.

21) Speijer 1980, 16.

22) Bhatt 2012, 58-59.

23) Ja. V, 23-24.

약속을 지키고 다시 오겠다는 자얏디사 왕의 바람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쥐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발화의 맥락을 참작해 sakkunemu는 약카 자신을 높이는 attabahuvacana로 봄이 적절하다는 것이 논자의 판단이다.

### III. 『밀린다빵하』와 주석서(Atthakathā)의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

#### 1. Jay의 용례

주석서가 본격적으로 편집 및 제작되기 시작한 CE 5세기 이후부터 새로운 유형의 경어 복수형이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2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을 한 명의 대상(청자)을 지칭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1인칭 경어 복수형과 더불어 2인칭 동사의 복수형을 경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원전의 용법과 차별화된다. 원전에서 2인칭 대명사 tvam의 단수형과 복수형은 모두 가리키는 대상의 실제 수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소개할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은 경전 이후(post-canonical)에 속하는 용법으로 보아야 한다.

『자얏디사 자따까』의 서사 주석에서, 자얏디사 왕은 결국 도시로 돌아오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리나삿뚜 왕자가 아버지를 대신해 약카에게 찾아간다. 거기서 왕자는 약카인 줄 알았던 그가 사실 인간이고, 게다가 자신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음은 왕자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구절이다.

tāta nāyaṃ yakkho tumhākaṃ jetṭhabhātā esa mayhaṃ petteyyoti sabbapavattiṃ ārocetvā tumhehi mama petteyyaṃ datṭhaṃ vaṭṭatī āha.<sup>24)</sup>

“아버지, 그는 약카가 아니라 당신의 맏형이자 제 삼촌입니다.”라며 모든 일을 아뢰고서 “당신께서는 제 삼촌을 보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에서 화자(왕자)는 청자(왕)를 직접적으로 지칭할 때마다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을 사용해 왕의 체면을 높이고 있다. 2인칭 대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경어 복수형은 다양한 격을 가지는데, 소유격 tumhākaṃ이 특히 자주 쓰인다. 그러나 왕자는 상대의 신

24) Ja. V, 35.

분과 무관하게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1인칭 대명사의 단수형을 사용한다. 이처럼 Ja의 주석에서는 원전의 1인칭 경어 복수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Ja의 현재 이야기(paccuppanna-vatthu)와 과거 이야기(atīta-vatthu)에 해당하는 주석에는 이러한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현재 이야기에서 붓다가 비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물으면 “존사시여, 다름 아닌 당신의(tumhākaṃ) 출리를 찬탄하며 앉아 있습니다.” 혹은 “존사시여, 데와닷따가 당신을(tumhākaṃ) 살해하려고 한다며 그의 허물을 논하려고 앉아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이다.<sup>25)</sup>

『아요가라 자따까(Ayoghara Jātaka)』의 과거 이야기에 나오는 용례 또한 전형적이다. 아요가라 왕자와 대신들의 아래 대화를 보면, 알리나삿뚜 왕자가 자얏디사 왕을 높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신들(화자)이 왕자(청자)를 높이고 있다.

mama pitā maṃ ettakaṃ kālaṃ bhandanāgāre vasāpesi evarūpaṃ alaṃkatanagaraṃ datṭhuṃ na adāsi. ko nu kho mayhaṃ doso ti amacce pucchi. deva natthi **tumhākaṃ** doso. **tumhākaṃ** pana dve bhātike ekā yakkhinī khādi. tena **vo** pitā ayoghare vasāpesi. ayogharena **tumhākaṃ** jīvitaṃ laddhanti.<sup>26)</sup>

“나의 아버지는 나를 그동안 감옥 같은 곳에 살게 하고 이처럼 장식된 도시를 보지 못하게 하셨다. 내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아요가라 왕자가] 대신들에게 물었다. “왕자시여, 당신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두 형제를 어느 약키니가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철로 된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철로 된 집 덕분에 당신의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위의 단락에서 아요가라 왕자는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형 **mayhaṃ**을 사용해 자신의 잘못(doso)을 묻고, 대신들은 2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복수형 **tumhākaṃ**을 사용해 답한다. 이외에도 그들은 목적격 **vo**를 비롯한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왕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

이와 같이 Jay의 주석에서 발견되는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은 계승(원전)의 용

25) Ja. I, 137: bhante na aññāya kathāya tumhākaṃ yeva pana nekkhammaṃ vaṇṇayamānā nisinn' amhāti; Ja. I, 173: bhante devadatto tumhākaṃ vadhāya parisakkatīti.

26) Ja. IV, 493.

례들과 구분되며 Ja의 다른 자따까에서도 상용된다. 하지만 이 용법은 Ja에 한정되지 않고 『밀린다빵하(Milindapañha, 이하 Mil)』<sup>27)</sup>에서부터 CE 5세기 이후 완성된 여러 주석서에서 그 용례가 발견된다.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을 주석서의 특징적인 용법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례들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에서는 Mil, Ja, 붓다고사와 담마빨라의 주석서에 등장하는 몇몇 용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용법의 상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유형

먼저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의 다양한 용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높임의 방향,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분류된 다섯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용례들은 출처에 따라 Mil의 경우 CE 1-3세기 (혹은 CE 5세기 이전), 붓다고사의 주석은 CE 5세기, Ja는 CE 5-6세기, 담마빨라의 주석은 CE 6세기 이후<sup>28)</sup>의 연대기적 선후관계를 가진다. 이들은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이 시기에 저술된 빠알리어 문헌에서 널리 쓰였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나, 경어 복수형에 관한 연구 부족과 문헌의 방대함으로 인해 모든 용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역시 한정된 용례에 기반하여 이 용법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용례들에 따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1) 왕/왕자를 높임

『빠판짜수다니(Papañcasūdanī)』에서 붓다고사는 『밧달리경(Bhaddāli Sutta)』에서 준마가 받는 훈련의 목록 중 왕의 특성(rājagūṇa)에 대한 훈련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27) Mori 1997-98, 311-312. 모리(Sodo Mori)에 의하면 Mil는 원전과 주석서의 연대적 간극 사이에 위치하는 문헌이다. 주석서에서 Mil이 자주 인용됨을 고려했을 때, Mil의 연대의 하한선은 붓다고사가 활동한 5세기 이전이다. 그러나 모리는 기원후 1세기 와사바(Vasabha) 왕의 재위 전에 Mil의 대부분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3세기 말경까지 예외적으로 몇 부분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또한 3세기 말부터는 상할라 출처자료들이 수정 없이 5세기 초까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Mil 역시 그 이후로는 지금의 형태를 갖췄을 것으로 본다. Mil의 연대에 관한 다른 참고문헌으로는 Norman 1983, 110-111; Hinüber 1996, 85-86; Ooi 2022, 69-70.

28) 담마빨라의 연대에 대해서는 Norman 1983, 137; Hinüber 1996, 169; Gornall and Falquéz 2019, 422-423.

“왕의 특성”은 왕이 알아야 할 특성을 말한다. 꾸따간나 왕에게는 굴라반나라는 이름의 말이 있었다고 한다. 왕은 동문으로 나가서 “나는 쩌띠야뺨바따로 가겠다”라며 깔람바 강의 강기슭에 이르렀다. 말은 강기슭에 서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말조련사를 불러 “이야, 그대가 길들인 말은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왕이시여, 잘 길들여진 말에게는 ‘만약 내가 물에 들어가면 꼬리털이 젖을 것이다. 꼬리털이 젖었을 때 왕의 팔다리에 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처럼 **당신(tumbhākaṃ)**의 옥체에 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하들로 하여금] 꼬리털을 들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왕은 그렇게 하도록 했다. 말은 빠르게 [물에] 들어가 저편으로 갔다. 이런 연유로 이 훈련은 행해진다.<sup>29)</sup>

붓다고사에 의해 서술된 말조련사와 꾸따간나 왕 사이의 위 대화에서 말 조련사는 2인칭 대명사 소유격 복수형으로 왕을 높여 칭하고 있다. Jay 주석 용례와 마찬가지로, 신하 등의 아랫사람이 왕이나 그에 준하는 후계자를 높여 부르는 것은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다.<sup>30)</sup> 원전에서는 보통 왕이나 붓다를 2인칭 대신 3인칭 단수로 완곡하게 지칭하며 높이지만, 주석서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2인칭으로 부르되 복수를 적용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어 경어의 일종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물들도 Ja에서 자기 종족의 왕 혹은 인간사회의 왕에게 경어 복수형을 쓰는 것으로 묘사된다. 『날라빠나 자따까(Nalāpāna Jātaka)』에서 보디삿따는 8만 원숭이를 통솔하는 원숭이 왕(kapirājā)이었다. 그는 근처 호수에 사는 어느 락카사(udakarakkhasa)로부터 원숭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없을 때는 새로운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조언한다.

29) Pps. III, 159-160: rājaguneti raññā jānitabbagūṇe. kūṭakaṇṇarañño kira guḷavaṇṇo nāma asso ahoṣi. rājā pācīnadāvarena nikkhamitvā cetiyapabbataṃgamissāmīti kalambanadīṭiraṃ sampatto. asso tīre ṭhatvā udakaṃ otarituṃ na icchatī. rājā assācariyaṃ āmantetvā aho tayā asso sikkhāpito udakaṃ otarituṃ na icchatīti āha. ācariyo susikkhāpito deva asso evam assa hi cittaṃ sacāhaṃ udakaṃ otarissāmi vālaṃtemissati vāle tinte rañño aṅge udakaṃ pāteyyāti evaṃ tumhākaṃ sarīre udakapātanabhayena na otarati vālaṃ gaṇhāpethāti āha. rājātathā kāresi asso vegena otaritvā pāraṃ gato etadatthaṃ ayaṃ kāraṇā karīyati.

30) 이 유형의 다른 용례들로는 Sp. I, 82; Ja. I, 202-203; Ja. V, 35; Khp-a., 161; Pv-a., 74.

[그들은] 거기서 한 나절을 돌아다닌 후에 마실 물을 찾다가 어느 연못을 보고서 물을 마시지도 않고 **보디삿따가(bodhisattassa)**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보디삿따가 돌아와서 “다들 어째서 물을 마시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이(tumhākaṃ)**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sup>31)</sup>

한편, 『꼭꾸라 자따까(Kukkura Jātaka)』에서 보디삿따는 개로 태어나 수백 마리의 개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때 바나라시의 브라흐마닷따 왕은 자신의 마차 가죽을 어느 개가 삼켜버렸다는 것을 알고 근방의 개들을 무분별하게 죽일 것을 명령한다. 그러자 보디삿따는 동료들을 위해 왕을 찾아가서 진상을 밝힌다.

왕은 보디삿따의 말을 듣고 말했다. “현자여, 자네는 마차의 가죽을 먹은 게 누구인지 아는가?” “네, 압니다.” “누가 먹었는가?” “**당신의(tumhākaṃ)** 거처에 사는 훌륭한 종의 개들입니다.”<sup>32)</sup>

여기서 tumhākaṃ의 사용은 인상적이다. 『날라빠나 자따까』에서는 같은 종족(원숭이) 내에서 왕과 백성들의 위계가 작용하지만, 『꼭꾸라 자따까』의 경우에는 보디삿따와 브라흐마닷따 왕이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에 따르면 바라나시의 왕에게는 보디삿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해칠 수 있는 군사적 권력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경어 복수형이 사용될 수 있다.

## 2) 붓다/장로를 높임

불교 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빠알리 문헌의 특성상, 승단 내의 중요한 인물이 경어 복수형을 받는 유형 역시 일반적이다. 그러한 인물에는 붓다, 사리뿔따와 마하 깟사빠 등의 대장로, 그리고 승단의 위계에서 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포함된다.

---

31) Ja. I, 170: tattha bahudeva divasaṃ caritvā pāṇīyaṃ gavesamānā ekaṃ pokkharaniṃ divvā pāṇīyaṃ apivivā va bodhisattassa āgamaṇaṃ olokayamāna nisīdimṣu. bodhisatto āgantvā kiṃ tātā pāṇīyaṃ na pavithāti āha. tumhākaṃ āgamaṇaṃ olokemāti.

32) Ja. I, 177.

Mil의 초반부 『바히라까타(Bāhirakathā)』에서 나가세나는 스승의 지시를 따라 앓사굿따(Assagutta) 존자를 뵈러 간다. 그리고 스승이 일러준 대로 앓사굿따 존자에게 인사를 전한다.

“존사시여, 제 화상(和尚)께서 **당신의(tumhākaṃ)** 발에 머리 숙여 인사 올리십니다. 병 없이 근심 없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묻습니다. [화상께서] 저를 세 달 동안 **당신의(tumhākaṃ)** 곁에서 머물라며 보내셨습니다.”<sup>33)</sup>

반대로 Mil의 『아누마나빠하(Anumānapaṇha)』 종결부에서는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에게 “존사 나가세나시여, 다른 이들에게 있어 이러한 방식의 추론으로 붓다의 위력을 나타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시여, 저는 훌륭하게 수식된 당신의 (tumhākaṃ) 설명으로 인해 평온을 얻었습니다.”<sup>34)</sup>라고 말한다. 이처럼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은 왕이나 붓다처럼 한 사회의 가장 높은 권위자에게만 쓰이지 않고 인물간의 상대적 지위와 그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용된다.

한편, 담마빨라의 주석서에서도 이 유형의 용례들이 발견된다. 『시왈리 테라가타 주석(Sīvalittheragāthāvannaṇā)』에 따르면 숲빠와사 왕비는 7년의 임신 끝에 산통에 시달리다가 붓다의 축언으로 인해 시왈리를 무사히 출산한다. 그는 7년을 태내에서 보냈으므로 이미 성장한 상태였다. 이에 왕비는 승가를 일주일간 초대해 대접한다. 마지막 날에 사리뵈따는 시왈라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그때 장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의 무더기를 경험한 그대는 출가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존사시여, 받아주신다면 출가하겠습니다.”

숲빠와사는 그 소년이 장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대체 내 아들이 법의 장군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생각하며] 장로에게 다가가 물었다. “존사시여, 제 아들이 **당신과(tumhehi saddhiṃ)**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경험한 태내에 사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서 **당신께서(tumhehi)** 허락하시면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좋습니다, 존사시여. 그를 **출가시키십시오(pabbajetha).**”

33) Mil., 14: upajjhāyo me bhante tumhākaṃ pāde sirasā vandati appābādhaṃ appātakaṃ lahuṭṭhānaṃ balaṃ phāsuvihāraṃ pucchati imaṃ temāsaṃ tumhākaṃ santike vasituṃ maṃ pahiṇīti.

34) Mil., 347: dukkaraṃ bhante nāgasena aññesaṃ evarūpena kāraṇena anumānena buddhabalaṃ upadassayituṃ. nibbuto ‘smi bhante nāgasena tumhākaṃ paramavicittena pañhaveyyākaraṇenāti.

장로는 그를 사원에 데리고 가서 다섯 가지 명상주제 중 피부를 [명상주제로] 주고 출가시키면서 “시왈리어, 그대에게는 다른 훈계가 필요치 않다. 그저 그대가 7년간 경험한 괴로움만을 고찰하라.”라고 했다.] “존사시여, **당신의(tumhākaṃ)** 몫은 오직 출가였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sup>35)</sup>

pabbajetha에서 알 수 있듯이, 2인칭 대명사 복수형으로 지칭되는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복수로 호응된다. 여기서 경어 복수형은 습빠와사(화자)-사리뿔따(청자), 시왈리(화자)-사리뿔따(청자)의 대화에서 사용된다. 습빠와사는 붓다의 축언을 구하고 승가를 초대하는 신심을 갖추었고 시왈리는 출가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대장로인 사리뿔따에 대한 존경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삭까우다나 숫따 주석(Sakkudānasuttavaṇṇanā)』에는 신들의 왕인 삭까가 마하갓사빠 장로에게 경어 복수형을 쓰는 구절이 있다. 담마빨라의 주석에 의하면 삭까는 장로에게 보시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장로가 공덕이 필요한 불운한 이들에게서만 보시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한 삭까는 이수라의 딸 수자와 함께 가난한 노부부로 위장한다. 결국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마하갓사빠 장로가 삭까를 훈계하자, 그는 “속이고서 당신께(tumhākaṃ) 보시를 올리면 제게는 공덕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한다.<sup>36)</sup>

이상의 두 유형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형적인 예와 특수한 예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나머지 세 유형은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 용례의 다양성을 보이는 취지에서만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다.

### 3) 바라문을 높임

승단 내의 스승과 제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바라문 학도가 바라문 스승에게 경어 복수형을 쓰는 용례도 발견된다. 『찾따 마나와까 위마나 주석(Chattamāṇavakavimānavāṇṇanā)』

35) Thag-a. I, 147-148: atha naṃ thero evam āha. kim pana tayā evarūpaṃ dukkharāsiṃ anubhavitvā pabbajitūṃ na vaṭṭatīti, labhamāno pabbajeyyam bhanteti. suppvāsā taṃ dāraṃ therena saddhiṃ kathentaṃ disvā kin nu kho me putto dhammasenāpatinā saddhiṃ kathetīti theram upasankamitvā pucchī. mayham putto tumhehi saddhiṃ kim katheti bhanteti. attanā anubhūtaṃ gabbhavāsa-dukkham kathetvā tumhehi anuññāto pabbajissāmīti. sādhu bhante pabbajetha nantī. thero taṃ vihāraṃ netvā taca-pañcaka-kammaṭṭhānaṃ datvā pabbājento sīvali na tuyham aññena ovādena kammaṃ atthi. tayā va sattavassāni anubhūta-dukkham eva paccavekkhāhīti. bhante pabbajanaṃ yeva tumhākaṃ bhāro. yam pana mayā kātum sakkā tam aham jānissāmīti.

36) Ud-a., 200: vañcetvā tumhākaṃ dāne dinne mayham kusalam atthi natthīti.

에 따르면 찻따라는 이름의 바라문 청년은 아버지에 의해 옥갓타(Ukkatṭha)의 바라문 스승에게 보내진다. 그리고 그 아래서 수학하면서 바라문의 기예(brāhmaṇasippa)를 완성한다. 담마빨라의 주석에 따르면 그는 스승을 떠나면서 “저는 당신(tumhākaṃ) 곁에서 기예를 학습했습니다. 스승을 위한 답례로 당신께(vo) 무엇을 바치면 좋겠습니까?”<sup>37)</sup>라고 묻는다. 이는 위의 두 유형과 동일하게 윗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높임의 양상을 띤다.

#### 4) 남편을 높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삭까우다나 숫따 주석』은 가난한 노부부로 변신한 삭까와 수자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다음은 아내로 변신한 수자와 남편으로 변신한 삭가가 펼치는 역할극의 일부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삭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수자에게 말했다. “부인, 내 스승께서 이리로 오시면 **당신은(tvam)** 그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앉으시오. 아주 잠깐 속여서 공양을 올립니다.” 장로가 와서 대문 앞에 섰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일만 하면서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삭가가 “대문 앞에 어떤 장로가 서있는 것 같소. 한 번 **살펴보시오(upadhārehi)**.”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자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께서(tumhe)** 가서 **살펴보세요(upadhāretha)**.”<sup>38)</sup>

위의 대화에서 남편 역할을 맡은 삭가는 아내 역의 수자에게 2인칭 대명사 단수형 tvam과 2인칭 명령법 단수형 upadhārehi를 사용하는 반면, 수자는 삭카에게 각각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tumhe과 upadhāretha를 사용함으로써 대조를 이룬다. 이 용례는 부부간의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2인칭 경어 복수형의 사용 여부로 읽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여기서 경어 복수형을 통해 표현된 남편-아내의 관계 역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과 마찬가지로 상하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37) Vv-a., 229: mayā tumhākaṃ santike sippaṃ sikkhitaṃ. kin te gurudakkhiṇaṃ demīti āha.

38) Ud-a., 198: sakko taṃ āgacchantaṃ disvā sujaṃ āha. bhaddo mayhaṃ ayyo ito āgacchati taṃ tvam apassantī viya tuṇhi hutvā nisīda. khaṇeṇeva vaṇcetaṃ piṇḍapātaṃ dassāmāti, therō gantvā gehadvāre aṭṭhāsī. tepi apassantā viya attano kammameva karontā thokaṃ āgamayimsu. atha sakko gehadvāre ṭhito eko therō viya upadhārehi tāvāti āha, tumhe gantvā upadhāretha sāmīti.

## 5) 상호높임

이상의 네 가지 유형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경어 복수형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검토했다. 반면, 지금 살펴볼 Mil의 사례에서는 두 인물이 서로에게 경어 복수형을 사용한다. 『바히라까타』에서 로하나 존자는 나가세나를 출가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그래서 7년 10개월 동안 나가세나의 아버지인 소숫따라 바라문의 집을 찾아가 탁발을 한다. 그러나 갈 때마다 밥은 커녕 “존사시여, 지나가십시오(aticchatha)”라는 공손한 거절의 말조차 듣지 못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7년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존사시여, 지나가십시오”라는 말을 얻었다. 바로 그날 바라문은 바깥일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로를 보고서 “출가자여, **저희(amhākaṃ)** 집에도 오셨습니까(agamittha)?”라고 말했다. “네, 바라문이여, **갔습니다(labhimha).**” “그렇다면 무언가 얻으셨습니까(labhittha)?” “네, 바라문이여, **얻었습니다(labhimha).**” 불만에 찬 그는 집으로 가서 물었다. “그 출가자에게 무언가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시다.” 바라문은 둘째날에 ‘오늘 출가자의 거짓말을 문책해야겠다.’라며 대문에 앉았다. 장로가 둘째날에 바라문의 대문에 도착했다. 바라문은 장로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tumhe) 어제 **저희(amhākaṃ)** 집에서 무언가 얻지 않고서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avocuttha).** **당신의(tumhākaṃ)** 거짓말은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장로는 말했다. “바라문이여, **저는(mayaṃ)** **당신의(tumhākaṃ)** 집에서 7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존사시여, 지나가십시오’라는 말 한 마디조차 얻지 못하다가 어제 ‘존사시여, 지나가십시오’라는 말 한 마디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대의 말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avocumha).**”<sup>39)</sup>

---

39) Mil., 8-9: dasamāsādhikānaṃ pana sattannaṃ vassānaṃ avvayena ekadivasaṃ aticchatha bhanteti vacanamattaṃ alattha, taṃ divasameva brāhmaṇopi bahi kammantā āgacchanta paṭipathe therāṃ disvā kiṃ bho pabbajita amhākaṃ gehamaṃgamitthāti āha, āma brāhmaṇa agamamhāti, api kiñci labhitthāti, āma brāhmaṇa labhimhāti, so anattamano gehaṃ gantvāpucchi tassa pabbajitassa kiñci adatthāti, na kiñci adamhāti, brāhmaṇo dutiyadivase gharadvāre yeva nisīdi ajja pabbajitaṃmusāvādena niggaheṣṣāmīti, therō dutiyadivase brāhmaṇassa gharadvāraṃ sampatto, brāhmaṇo therāṃ disvāva evam āha, tumhe hiyyo amhākaṃ gehe kiñci alabhitvā yeva labhimhāti avocuttha vaṭṭati nu kho tumhākaṃ musāvādoti, therō āha mayaṃ brāhmaṇa tumhākaṃ gehe dasamāsādhikāni satta vassāni aticchathāti vacanamattampi alabhitvā hiyyo aticchathāti vacanamattaṃ alabhimha ath’etaṃ vacīpaṭisanthāraṃ upādāya evamavocumhāti.

이 대화에서 경어 복수형은 상당히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서 사용된다. 자신에 대해서는 1인칭 복수형이, 상대에 대해서는 2인칭 복수형이 철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면, 소숫따라가 생각한 내용을 서술할 때는 1인칭 단수형 (niggahessāmi)이 사용되었다. 이는 경어 복수형의 사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청자의 존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특징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의 사용은 원전과 주석서 사이에 성립된 Mil에서부터 시작해 다수의 주석서에서 발견된다. 로하나 존자와 소숫따라 바라문의 예에서 보았듯, 이미 Mil에서 이 용법은 일정한 패턴으로 사용된다. CE 5세기 이후의 주석서에서 잦은 용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석가들이 주석서 집필에 사용한 언어에 이미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흡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용례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다. 첫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유효한 위계 혹은 권력이 작용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를 같은 제도적·군사적·경제적 영향권 안에 묶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왕/왕자-아랫사람, 붓다/장로-아랫사람, 바라문-제자, 남편-아내는 친밀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맺는 상하관계에 해당한다. 『꼭꾸라 자따까』에서도 보디삿따는 개 무리의 우두머리이고 브라흐마닷따 왕은 인간사회(바라나시)의 왕이지만, 왕이 개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보디삿따와 브라흐마닷따 왕의 관계도 유효한 권력이 작동하는 상하관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원전의 빠알리어는 왕이나 붓다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2인칭 대신 3인칭 단수로 완곡하게 지칭하는 방식의 경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주석서의 빠알리어에서는 상대를 2인칭으로 칭하되 단수 대신 복수를 적용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헬름브레히트가 이론화한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의 문법화·관습화 과정과 일치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로 약칭됨)에 해당한다.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을 때, 그는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요구에 응해야 하는 청자의 책임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2인칭 대명사의 복수형 용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언어적 관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

나의 규칙이 되면 동일한 화용적 혹은 사회언어학적 조건 하에서 화자는 필수적으로 복수형을 쓰게 된다.<sup>40)</sup> Mil와 다수의 주석서에서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은 그것의 사용이 기대되는 맥락에서 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CE 1-3세기 혹은 CE 5세기경에 이 용법은 이미 문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조건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다. Mil의 상호 높임 용례가 그 예시이다. 주목할 점은 예의를 갖추어 경어 복수형을 사용할 때조차, 로하나 존자에 대한 소숫따라 바라문의 감정이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이 로하나 존자에게 보시를 했을까봐 초조해하며 다음날에는 로하나 존자의 거짓말에 대해 추궁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상에서는 상호 존중을 나타내는 복수형이 예외없이 사용된다. 이는 화자의 내적인 경험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경어 복수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을 상대에게 표출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언어적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언어에서는 경어의 사용이 곧 화자의 고상함을 암시한다.<sup>41)</sup> 따라서 ‘존경의 복수형’이라는 전통적 명칭을 가진 이 용법이 청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만 시사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어 복수형의 사용은 화자의 실제 감정 혹은 존경심과는 무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행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화자의 체면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기도 하기 때문이다.

#### IV. 결론

본 논문은 Jay의 계송과 주석의 경어 복수형 용례들로부터 출발해 빠알리 문헌에 나타나는 경어 복수형 용법의 특징과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전의 경우, 1인칭 경어 복수형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페르니올라의 지적처럼 왕과 바라문이 화자 혹은 청자인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1인칭 경어 복수형은 자신의 권위와 상대의 권위 중 어느 쪽이 강조되는지가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이는 문맥과 화자-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원전의 경

---

40) Helmbrecht 2003, 194-195.

41) Irvine 1992, 256.

어 복수형은 일정 조건 아래 규칙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정형구를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전에 기록된 빠알리어에서 경어 복수형은 아직 문법화 및 관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알리 원전에서 주석서로 이행하는 시기부터 2인칭 대명사의 경어 복수형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활용됨을 다수의 용례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현재 확보된 최초의 용례는 Mil으로, 이 사실에 기반하여 빠르게는 CE 1-3세기에서 늦게는 CE 5세기에 이미 경어 복수형의 문법화 및 관습화의 증거가 나타남이 밝혀졌다. 이후의 연구에서 보다 이른 연대의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 용례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최소한 CE 1-3세기 혹은 CE 5세기 이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결론에 만족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것처럼, CE 5세기 붓다고사 이후로는 다양한 주석 문헌에서 2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이 경어로 사용된다. 이 용법이 발효되는 조건은 첫째, 인물간에 유효한 위계가 작동하거나, 둘째,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가 작동하는 것이다. 용례분석을 통해 둘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형식적으로 2인칭 대명사 경어 복수형이 사용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화자와 청자도 특정 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하관계 및 상호 존중의 관계를 포괄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빠알리어의 경어 복수형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역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용례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빠알리어 문법의 일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약호

AN	Aṅguttara Nikāya
DN	Dīgha Nikāya
Ja	Jātakatthavaṇṇanā
Khp-a	Khuddakapāṭha-aṭṭhakathā (Paramatthajotikā I)
Mil	Milndapaṇha
MN	Majjhima Nikāya
Pv	Petavatthu
Pv-a	Petavatthu-aṭṭhakathā (Paramatthadīpanī III)
Pps	Papañcasūdanī
Rūp	Rūpasiddhi
Sadd	Saddanīti
Sp	Samantapāsādikā
Thag	Theragāthā
Thag-a	Theragāthā-aṭṭhakathā (Paramatthadīpanī V)
Ud	Udāna
Ud-a	Udāna-aṭṭhakathā (Paramatthadīpanī I)
Vv-a	Vimānavatthu-aṭṭhakathā (Paramatthadīpanī IV)

1차 자료

*Dhammapāla's Paramattha-dīpanī Part III: Being the Commentary on the Peta-vatthu*, ed. by E. Hardy.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94.

*Dhammapāla's Paramattha-dīpanī Part IV: Being the Commentary on the Vimāna-vatthu*, ed. by E. Hardy.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01.

*Maharupasiddhi* by Ven. Choliya Buddhapriya Maha Thera, the Head of the Maha Vihara sect in Ceylon, with *Sandehavighatani*, a Sinhalese paraphrase by an ancient great

- scholar*, ed. by B. K. Dhammaratana. Weligama: Sathmina Press, 1936.
- Papañcasūdanī (Majjhimanikāyaṭṭhakathā) III*, ed. by I. B. Horn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6.
- Paramattha-Dīpanī Theragathā-Aṭṭhakathā: The Commentary of Dhammapālācariya I*, ed. by F. L. Woodward.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1995.
- Paramattha-Dīpanī Udānaṭṭhakathā(Udāna Commentary) of Dhammapālācariya*, ed. by F. L. Woodward.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7.
- Paramatthajotikā I*, ed. by Helmer Smith.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15.
- Rūpasiddhi*. The Mahāsaṅgīti edition on the Digital Pali Reader: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g.4.2.0.0.2.0.m](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g.4.2.0.0.2.0.m)
- Saddanīti: La Grammaire Palie d'Aggavaṃsa I*, ed. by Helmer Smith. Lund: C. W. K. Gleerup, 1928.
- Samantapāsādikā: Buddhaghosa's Commentary on the Vinaya Piṭaka I*, ed. by J. Takakusu and M. Nagai.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24.
- The Aṅguttara-Nikāya II*, ed. by Rev. Richard Morri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88.
- The Aṅguttara-Nikāya IV*, ed. by E. Hardy.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99.
- The Aṅguttara-Nikāya V*, ed. by E. Hardy.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00.
- The Dīgha Nikāya I*, ed. by T. W. Rhys Davids and J. Estlin Carpent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90.
- The Dīgha Nikāya II*, ed. by T. W. Rhys Davids and J. Estlin Carpent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03.
- The Dīgha Nikāya III*, ed. by J. Estlin Carpent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11.
- The Jā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I*, ed. by V. Fausbøll. London: Trübner & Co, 1877.
- The Jā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IV*, ed. by V. Fausbøll. London: Trübner & Co, 1887.
- The Jā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V*, ed. by V. Fausbøll.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1891.
- The Majjhima-Nikāya I*, ed. by V. Trenckner.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88.
- The Majjhima-Nikāya II*, ed. by R. Chalmer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98.
- The Milindapañho: Being Dialogues Between King Milinda and the Buddhist Sage Nāgasena*, ed. by V. Trenckner. London: Williams and Norgate, 1880.
- The Thera- and Therī-gāthā: Stanzas Ascribed to Elders of the Buddhist Order of Recluses*, ed. by H. Oldenberg and R. Pischel, with Appendixes by K. R. Norman and L.

Alsdorf.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90.

*Udānaṃ*, ed. by P. Steinthal.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885.

*Vimānavatthu and Petavatthu*, ed. by N. A. Jayawickrama.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7.

## 2차 자료

- 김서리. 2017a. 「빠알리어에서 격(格)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ṅka 분석의 중요성」 『인도철학』 49: 253-288.
- \_\_\_\_\_. 2017b. 「빠알리어 시제에 관한 『갓짜야나 문법』과 『목갈라나 문법』의 규칙 분석」 『인도철학』 51: 139-176.
- \_\_\_\_\_. 2019. 「빠알리어 동사의 범에 관한 『목갈라나 문법』의 규칙과 예시 분석」 『인도철학』 55: 115-152.
- \_\_\_\_\_. 2021. 「빠알리어 동사어간을 만드는 활용문자에 관한 연구—『목갈라나 문법』과 『갓짜야나 문법』의 규칙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61: 5-37.
- \_\_\_\_\_. 2024a. 「빠알리어 접미사 *tūna*, *tvāna*, *tvā*에 관한 연구—『갓짜야나 문법』, 『목갈라나 문법』, 『삿다니띠』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70: 125-151.
- \_\_\_\_\_. 2024b. 「『갓짜야나 문법』의 *Samāsa*장 분석을 통한 빠알리어 복합어 연구」 『인도철학』 72: 5-38.
- \_\_\_\_\_. 2024c. 『갓짜야나 문법 (상)』. 서울: 세창출판사.
- 황순일. 2007. 「붓다의 열 가지 호칭의 기원과 전개」 『인도철학』 23: 97-115.
- \_\_\_\_\_. 2010. 「比丘와 苾芻를 둘러싼 빠알리어와 범어의 다양한 뉘앙스」 『인도철학』 30: 79-96.

Appleton, Naomi. 2016. *Jātaka Stories in Theravāda Buddhism: Narrating the Bodhisatta Pa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hatt, Sunil Kumar. 2012. "Honorifics in Hindi: a morphological, semantic and pragmatical analyses." *Linguistica Brunensia* 60: 49-60.

Collins, Steven. 2006. *A Pali Grammar for Students*. Mueang Chiang Mai: Silkworm Books.

Gornall, Alastair. 2014. "How Many Sounds are in Pāli?." *J Indian Philos* 42: 511-550.

Gornall, Alastair and Aleix Ruiz-Falquéz. 2019. "Scholars of Premodern Pali Buddhism." *Brill's Encyclopedia of Buddhism* 2: 420-436. Leiden: Brill.

Helmbrecht, Johannes. 2003. "Politeness distinctions in second person pronouns." *Pragmatics and*

*beyond New Series*: 185-202.

- Helmbrecht, Johannes. 2014. "Politeness distinctions in personal pronouns: A case study on competing motivations." *Competing motivations in grammar and usage*: 315-332.
- Hinüber, Oskar von. 1996.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Berlin; New York: de Gruyter.
- Irvine, Judith T. 1992. "Ideologies of honorific language." *Pragmatics* 2(3): 251-262.
- Matsumara, Junko. 1999. "Remarks on the Rasavāhinī and the Related Literature." *JPTS XXV*: 155-172.
- Mori, Sodo. 1997-98. "The Milindapañha and the Pāli Aṭṭhakathā Literature." *Indologica Taurinensia* 23-4: 291-312.
- Norman, K. R. 1983. *Pāli Literature: 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nayāna Schools of Buddhism*.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Ooi, Eng Jin. 2022. "Transmission of the Milindapañha." *BSRV* 39.1: 67-111.
- Perniola, Vito. 1997. *Pali Grammar*.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 Pischel, Richard. 1957. *Comparative Grammar of the Prakrit Languages*. transl. by Subhadra Jhā. Varanasi: Motilal Banarsidass.
- Speijer, J. S. 1980. *Sanskrit Syntax*. Delhi: Motilal Banarsidass. (First Edition printed in 1886.)
- Wagle, N. K. 1967. "Social Groups and Ranking: An Aspect of Ancient Indian Social Life Derived from the Pali Canonical Texts." *JESHO* 10(2): 278-316.
- Warder, A. K. 1967. *Pali Metre: A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 Honorific Plurals in Pāli and Its Chronological Development: Usages from the *Jayaddisa Jātaka* and Others

Yealim Kwon

(Doctoral Student,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Kyungr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re is a distinctive usage of plurals(*bahuvacana*) in Pāli which has been under-researched in the field: honorific plurals. This paper introduces textual evidence for early knowledge on the subject by citing Dhammapāla's commentaries as well as the *Rūpasiddhi* and the *Saddanīti*. In characterizing Mūla and Aṭṭhakathāusages of honorific plurals, passages from the *Jayaddisa Jātaka* in the *Jātakatthavaṇṇanā* prove to be representative since they contain honorific plurals in first person, which are predominant in canonical texts, and honorific plurals of the second person pronoun unique to post-canonical texts. The latter is found in multitude in the *Milindapañha* and several commentaries, whereas the former is distributed sparsely across the canonical body. Evidences suggests that the second person pronoun honorific plurals in second person pronouns had likely been grammaticalized by the time when *Milindapañha* was composed and continued to be applied frequently by the early commentators such as Buddhaghosa, Dhammapāla and the author of the *Jātakatthavaṇṇanā*. Herein, this chronological development is examined using pericopes set in various pragmatic contexts.

Since a detailed academic discussion of the subject has been lacking, most examples and analyse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new and therefore should contribute to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honorific plurals in Pāli.

**Keywords:** honorific plurals, garu-bahuvacana, Pāli grammar, Pāli-*Aṭṭhakathā*, the Jayaddisa Jātaka, second person pronoun.

2026년	2월 14일	투고
2026년	4월 1일	심사완료
2026년	4월 3일	게재확정